

Basic Outline of Bishop Brown's Rethink Conference Message

In my travels around the conference I have heard stories of faithfulness and stories of worry and loss of heart.

여러 연회를 다니면서 저는 믿음의 이야기들을 듣기도 하고 근심스럽고 마음이 상하는 이야기들도 들었습니다.

2 Timothy says "For God did not give us a spirit of timidity, but a spirit of power of love and of self-discipline" (2 Tim 1:7)

디모데 후서 1 장 7 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It is time for us to re-think church. The times and our world have changed. Our calling has not changed.

지금은 교회에 대하여 다시 생각을 해보아야 할 때입니다. 시대도 변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John Wesley said that our purpose was to reform the nation, particularly the church; and to spread scriptural holiness over the land.

존 웨슬리는 우리의 목적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특히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땅에 성경적인 거룩함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must focus on our purpose in being the church and we must be unafraid to trust our God of great abundance who leads us into a life of hope and work.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하고 소망과 역사가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충만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Our population in our conference has increased from 8 million to 18 million in the last 40 years, but our attendance has remained at about 40,000 each Sunday. Our membership has declined from 117,000 to about 90,000.

우리 연회에 속한 숫자는 지난 40년 동안 8 백만에서 1,800 만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참석하는 숫자는 매 주일 약 4 만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등록 교인은 11 만 7 천명에서 약 9 만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Circuits, clergy, laity, leaders are asking the same questions. It is time to re-think who we are so that we can unify our mission and our practice for the purpose of making disciples of Jesus Christ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

교구들 (Circuits), 교역자들, 평신도들, 교회 지도자들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드는 목적을 위하여 선교와 훈련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We have already begun:

Through Circuits clergy are working together for cooperative ministry within their communities.

Superintendents have begun to spend time in coaching and visioning beyond management.

The Board of Laity is working with the Bishop and conference leadership to find ways of deepening the partnership between clergy and laity.

Clergy and laity have taken advantage of workshops led by Doug Anderson, Eric Geiger (Simple Church), and Bishop Robert Schnase (5 Practices of Fruitful Congregations).

Bishop Schnase will be with us and Annual Conference. Doug Anderson will be with us in October. Their workshops will be open to both clergy and laity.

우리는 이미 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 교구를 통하여 교역자들이 지역 사회에서 협동적인 사역을 연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감리사들은 관리 차원을 넘어서 교회를 지도하고 비전을 나누는 일에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 평신도 협의회는 감독과 연회 지도자들과 함께 교역자들과 평신도들이 더 잘 동역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역자들과 평신도들은 덕 앤더슨 (Doug Anderson)이나 “간결한 교회 (Simple Church)”를 쓴 에릭 게이저(Eric Geiger)와 “열매맺는 교회를 위한 다섯 가지 실천(5 Practices of Fruitful Congregations)”을 쓴 로버트 슈나스 감독 (Bishop Robert Schnase)이 인도하는 세미나들을 통해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 슈나스 감독께서 연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덕 앤더슨은 10월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인도하는 세미나에 교역자들과 평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To continue these efforts toward mission focus and fiscal responsibility there are 4 legislative requests that are coming to Annual Conference.

선교에 대한 집중과 재정적인 책임에 대한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번에 열리는 연회에서 4 가지의 안건을 제안합니다.

The annual conference will be asked to

1. Suspend Section V of our Journal. This section describes how our boards and agencies are structured. This request is so that we can find ways to organize that align more effectively with our mission. A report will be made to annual conference in 2011 and recommendations for modifications to our organizational structure will be brought in 2012.

2. Consolidate the number of districts from 7 to 4 so that we can use the strengths of circuits to share in ministry development. Superintendents will strategically focus on ministry in churches and circuits through coaching and consultation. Administrative functions will be consolidated to West Sacramento so that we can attain greater consistency in responses and more unified and efficient administrative practices. The annual conference sets the number of districts and the Bishop draws district lines.

3. Move to direct billing each congregation for pension costs for the appointed pastor. This will remove pension costs for active clergy from the apportionment and help local churches

make ministry decisions based on actual costs of pastoral service. It will also allow apportionments to truly reflect the mission we share.

4. Adjust the minimum salary formula so that minimum salary stays in line with the economy. Our current structure raises pastoral salary faster than the cost of living.

연회는 다음의 항목들을 제안합니다.

1. 정관 (Journal) 제 5 항을 정지하기를 제안합니다. 이 항에는 이사회 (boards)와 기관 (agencies)의 구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제안은 선교를 좀 더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방법을 찾기 위함입니다.
2. 사역의 발전을 나누는데 교구들의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7 개의 지방(district)을 4 개로 통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 감리사들은 교회를 지도하고 상담하여 교회와 교구의 사역에 전략적으로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일관적인 행정 처리와 좀 더 연합되고 효과적인 행정 실행을 이루기 위하여 행정적인 기능은 새크라멘토 서부로 통합될 것입니다. 연회에서는 지방회 숫자를 정하고 감독은 지방 분할을 하게 됩니다.
3. 파송 목사 (appointed pastor) 의 연금 경비를 위하여 각 교회에게 직접 청구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각 교회에서 내는 분담금 (apportionment)에서 현역 교역자들을 위한 연금 경비가 없어지게 되고 교역활동에 대한 실제 비용에 근거하여 지역 교회가 사역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분담금이 우리가 나누는 선교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교역자들의 사례비가 현재 경제에 맞추어 유지되기 위하여 교역자들의 최소 사례 정산법을 조절하기를 제안합니다. 우리의 현 구조는 생활비보다 교역자들의 사례비를 더 빨리 인상합니다.

These 4 steps aren't the destination.

The church is ultimately about missional Christianity. It is about knowing Christ through serving as Christ served.

이 네 단계는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선교적인 기독교를 위함입니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Rethink Church asks: what if church was more about the other days of the week, what if church was something we do, what if church were thousands of doors each opening up to a different concept or experience of church?

교회를 다시 생각하면서 물어봅니다. 주중의 다른 날 보다 교회가 더 비중이 있습니까?

교회가 우리가 하는 특별한 것입니까? 교회가 다양한 개념이나 경험을 받아드리는 수 천개의 문 같은 곳입니까?

We cannot move forward alone. We need God's leadership and each other's help.

우리는 스스로 혼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서로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I want to share my vision with you. I know that the way we describe this vision and the vision itself may change as we work together on God's behalf. This is not an absolute statement. It is where I sense God is leading us now:

여러분에게 저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비전을 나누는 방법과 비전 자체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같이 일할 때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인 선포는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라고 제가 느끼는 시점입니다.

God is leading us to a time when:

하나님은 우리를 다음과 같은 때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Each United Methodist, laity and clergy alike - is seriously and joyously engaged in the life long spiritual practice of discipleship formation, where our practice is to do no harm, to do good and to stay in love with God.

각 연합 감리 교인들이 평신도와 교역자가 똑 같이 제자를 만드는 영적인 훈련에 지속적으로 진지하고 기쁘게 참여하는 때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훈련에서 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한 일을 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지키는 곳이어야 합니다.

Each United Methodist Congregation and ministry is committed to the central mission of making disciples for Jesus Christ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 and has an intentional path toward disciple formation.

각 연합감리교회 회중과 사역은 세상의 변화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핵심적인 사명에 헌신하고 제자를 만드는 일에 계획적인 방법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Each lay person in a United Methodist community grows its calling, discernment, practice and witness within the church and within the community.

연합감리교회 공동체의 모든 평신도들은 교회 안에서와 지역 사회에서 그 일에 대한 부르심과 인식, 실천과 증인으로 성장할 때입니다.

Each United Methodist clergy person practices, lives and models the spiritual life and leads the ministry setting into being a faith based, mission centered, joyful community.

연합감리교회의 교역자들은 영적인 삶을 실천하며 살고 모범이 되어, 믿음에 바탕을 두고 선교가 중심이며 기쁜 공동체로 세우는 사역으로 인도할 때입니다.

Our ministry as United Methodists is developed and practiced collectively: clergy and lay, local and global, across languages and heritage through circuits, communities and connections that reflect our unity in Christ.

연합감리교인으로서 우리의 사역이 발전되고 총체적으로 실천될 때입니다. 교구와 지역사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모든 관계 안에서 교역자와 평신도, 지역 교회와 범세계적 교회, 언어와 문화 전통을 뛰어 넘는 총체적인 발전과 실천을 말합니다.

This is not a time to be timid. God is faithful. Our God is a God of abundance and God will provide as we are faithful in response.

지금은 소극적일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